英親王妃 首飾 裝身具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 연구

The Research of Industrial Application through Digitalization
of the Jewelry of Imperial Princess YEONG

정아영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금속/주얼리디자인랩 박사과정

A-Young Chung(ay7347@hanmail.net)

요약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교한 금속공예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여성 장신구를 제작, 착용해왔다. 이러한 장신구 중 특히 조선시대의 장신구는 실용성과 장식성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 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원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된 영친왕비 장신구는 개화기 이후, 조선 말기의 유물이지만 궁중의식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엄격히 지켜진 궁중복식 정례(定例)에 따라 전통적 형태나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종류의 다양성과 원형에 가까운 보존상태, 국말 상의원 소속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에 있어서도 예술성 뿐 아니라 궁중 양식과 그 체제 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 영친왕비가 사용한 장신구 가운데 조형적 가치가 있는 수식 11점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그 형태와 문양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전통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사회적 활용방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여성장신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양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산업과 현대장신구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영왕비(英王妃) | 장신구(裝身具) | 수식(首飾) |

Abstract

Historically, Korea has made and weaved beautiful jewelry based on delicate metal craft technique. Especially jewelries in Chosun dynasty among these jewelry shows practicality, fanciness and social symbolism at the same time, which is one of representative cultural origins to express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Since jewelry of imperial princess YEONG, an object of a study herein, was made for a court ceremony although it is an artifact of the end of Chosun dynasty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it is expected be made based on traditional shape and standard in accordance with strictly respected court dress code in Chosun dynasty. It is also an important data of research for a court style and system as well as its artistry in its diversity of type, preservation condition similar to original form and its producers who are master craftsman parted in Sang-Uiwon (an institute in charge of dress and accessories of court) at the end of dynasty. Thus, a study herein aims to research formatively valuable 11 selected jewelries among jewelries of imperial princess YEONG used at the end of Chosun dynasty, and search for industrial application method with digitalization of the shape and design and preservation of original form of traditional culture. Moreover, in accordance with proposing design data through review of traditional women jewelry, it aims to suggest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to modern jewelry design and cultural industry.

■ keyword : | Imperial Princess YEONG | Jewelry |

I. 서 론

1. 연구목적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교한 금속공예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여성 장신구를 제작, 착용해왔다. 장신구는 미적 욕구충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사회발달과 함께 다양한 기능과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부귀다남자(富貴多男子)와 같은 현세구복적(現世求福的)인 상징성을 담은 의례품(儀禮品) 혹은 수식품(修飾品)으로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착용자의 신분이나 경제적 상태를 표시하는 등 당대의 미의식과 사회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신구 중 특히 조선시대의 장신구는 실용성과 장식성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 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 원형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문화를 콘텐츠화 하는데 있어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형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영친왕비 장신구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여 2D화 함으로써 전통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장신구 교육은 서양디자인 교육과 제작기법에 익숙하여 디자인과 조형성에 있어서 한국적 감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친왕비 장신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양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산업과 현대장신구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오늘날에는 사회-문화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질적으로 우수하게 디지털화하였는가 하는 점이 그 사회의 문화 경쟁력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장신구의 원형보존을 위한 디지털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말기 궁중에서 사용된 영친왕비 장신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소재로 영친왕비 장신구를 선택한 이유는 장신구의 착용자와 착용시기가 명확하며, 궁중유물로서 국말 상의원 소속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 당시를 대표하는 장신구로써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영친왕비 장신구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문양요소가 풍부한 수식(首飾) 11점을 선정하여 각각 세부의 조형을 살펴 각 유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가운데 문양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을 2D로 제작하는데,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형태를 도안화하고 그 가운데 문양을 추출하였다.

둘째, 제작된 2D자료의 디자인 활용을 위해 문양을 현대적으로 도안화하여 디지털 패턴을 제작하였다. 또한 장신구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여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英親王妃 裝身具에 대한 일반적 고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영친왕가의 복식 유물은 조선왕조 최후의 복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존하는 궁중 복식유물은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식품(修飾品)이 일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일차적으로 가치가 있다. 또한, 그 종류의 다양성과 원형에 가까운 보존상태, 국말 상의원 소속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에 있어서도 예술성 뿐 아니라 궁중 양식과 그 체제 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유물은 영친왕비의 위탁으로 1957년부터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오다가 1991년 한국에 반환됨으로써 조선왕실의 복식문화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영친왕가 복식 유물은 영친왕 내외가 1922년 4월 29일 순종황제와 윤대비를 알현할 때 착용한 의복과 장신구가 중심을 이룬다. 소장유물은 의복류와 장신구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의복은 총 79점으로 왕복이 17점, 왕비복이 36점, 왕손복이 25점이다. 장신구류는 총 73점으로 족두리 2개, 화관 1개, 땃기 2개, 첩지1개, 다리 1개, 가채 1개, 비녀 28개, 땃잠 5개, 앞꽃이 4개, 지환 2개, 금직 머리대 1개,

노리개 11개, 주머니 10개, 유소 1개 등 이며 이 밖에 필낭 1개, 수저집 1개, 경대 1개 등이 있다.

왕복으로는 예복인 곤룡포를 비롯하여 이에 따르는 익선관·옥대·목화 등의 있으며, 평상복인 마고자·두루마기·저고리·바지·조끼 등이 전한다. 왕비복으로는 적의(翟衣)를 비롯하여 금직 당의·금직 스란단치마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적의는 왕비의 예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이다. 이와 함께 적의 착용시 따르는 부속품 일체가 원형대로 보존되어있어 형태 및 착용상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부속품으로는 패옥·후수·옷치마·폐슬·하피·옥구 등과 수식품(首飾品)으로 가체를 비롯하여 금직 머리대·봉잠·용잠 등이 있다. 또한 진주염낭 등 여러 종류의 주머니는 종종 풍속의 일면을 보여준다. 왕손복으로는 자적용포와 사규삼·창의·복건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영친왕가 복식 유물 가운데 영친왕비인 이방자 여사가 사용한 수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英親王妃 首飾 裝身具의 디지털화(2D)

2.1 수식 장신구 연구

영친왕비의 장신구 유물 가운데 조형성이 뛰어나고 문양요소가 풍부하여 디지털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 작품을 선정하여 그 세부 조형을 살펴보고, 형태 가운데 문양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2D화하였다. 선정한 유물은 침지 1점, 비녀 8점, 앞꽃이 2점, 땡기장식 1점으로 총 수식 11점이다.

2.1.1 가란잠(加蘭簪)

유물번호: 장신구-088, 089

비녀는 그 형태나 재료로 신분이 구별되기도 하였으며 계절이나 머리 모양에 따라 다른 것을 착용하였다. 비녀는 가체로 인한 폐단과 사치를 없애고자 시행된 영·정조 때의 가체금지령을 계기로 그 쓰임이 확대되었는데, 결발(結髮)도구로서의 실용성과 수식품(首飾品)으로서의 장식성, 다채로운 조형성, 그리고 착용자의 신분 및 착용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 상징성 등을 갖춘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성 수식(首飾)이라 할 수 있

다.

그 가운데 비녀머리(蠟頭)에 난초를 장식한 비녀를 가란잠이라고 한다. 이 한 쌍의 가란잠은 난초 외에도 연꽃과 해오라기 등의 문양이 더해져 독특하고 화려하다. 비녀머리는 4개의 측면을 가진 초롱형태로 연꽃과 난초, 해오라기 모양이 장식되어 있다. 은으로 만들고 금도금하였는데 하늘색, 남색, 보라색의 칠보를 부분적으로 입혔다.

2.1.2 매죽잠(梅竹簪)

유물번호: 장신구-109

매화와 대나무 형태를 딴 비녀를 매죽잠이라고 한다. 정절을 상징하였으며 나라에서 열녀문을 내릴 때 기념으로 주기도 하였다. 상류층 부녀자들이 3·9월 까지 애용하였다²⁾. 은으로 만들어 금도금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청색 칠보를 입혔다. 비녀머리의 중심대 부분은 대나무의 줄기모양으로 각 마디마다 매화와 대나무, 그리고 불로초 문양을 음각하였다. 중심대 위는 땡잎과 매화, 난초가 장식되었다. 특히 매화와 난초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2.1.3 매죽잠(梅竹簪)

유물번호: 장신구-112

앞에서 살펴본 2.1.3의 매죽잠과 같은 재질과 구성의 매죽잠이나 비녀머리의 장식이 보다 간소화되었다. 은으로 만들어 금도금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청색 칠보를 입혔다. 중심대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며 중심대 위의 땡잎, 매화, 난초의 문양은 사실적이기보다는 도안화되었다.

2.1.4 산호매죽잠(珊瑚梅竹簪)

유물번호: 장신구-108

앞에서 살펴본 2.1.3의 매죽잠과 같은 재질과 구성의 매죽잠으로 은으로 만들어 금도금하였으며 다른 점은 비녀머리에 칠보장식 대신에 부분적으로 홍산호(紅珊瑚)와 비취모(翡翠毛)로 꾸며 화려함을 더한 점이다. 비녀머리의 죽절형 중심대 각 마디에는 2.1.3의 매죽잠

1 김영숙,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도서출판 신유, 2002, pp.212~215.

2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 2004, p. 106.

과 같이 매화와 대나무, 그리고 불로초 문양을 음각하였다. 중심대 위에 장식된 대나무 잎과 매화 잎에는 하늘색 비취모를 붙였으며 매화와 난초의 중심에는 홍산호를 감입하였다. 금색과 홍색, 하늘색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 부분적으로 산호가 결실된 부분에는 붉은 밀랍으로 보수한 흔적이 있다,

2.1.5 매죽잠(梅竹簪)

유물번호: 장신구-111

은으로 만들어 금도금한 매죽잠이다. 비녀머리 아랫부분에는 죽절을 음각하고 마디마다 매화, 불로초, 대나무 등을 음각하였다. 비녀머리 좌우로는 각각 6개의 대나무 잎과 매화를 위쪽으로는 매화와 난초모양을 장식하였다. 대나무 잎에는 전면에, 매화와 난초에는 부분적으로 비취모를 붙였다.

2.1.6 매조잠(梅鳥簪)

유물번호: 장신구-110

매화와 새로 비녀머리를 장식한 비녀를 매조잠이라고 한다. 이 비녀는 금도금한 은비녀로 비녀머리가 초롱형태이다. 초롱형태의 표면에는 여러 종류의 꽃과 새 장식으로 꾸몄으며 비녀머리의 끝에는 커다란 매화를 장식하였다. 매화의 꽃과 잎사귀 부분은 비취모로 장식하였다.

2.1.7 모란문오두잠(牡丹紋烏頭簪)

유물번호: 장신구-094, 095

‘오두잠’은 부인들이 보통 때에 꼰 단순한 형태의 비녀로 비녀머리의 한편을 턱지게 만들었다. 대수, 큰머리, 어여머리를 할 때에는 가채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 비녀로도 사용되었다. 은으로 만들어 금도금한 이 오두잠은 한 쌍으로, 비녀머리에는 모란꽃이 양각되었다.

2.1.8 백옥영락초롱잠(白玉瓔珞草籠簪)

유물번호: 장신구-126

초롱잠은 비녀머리를 초롱형태로 만들어 시원한 느낌을 주는 비녀로 왕실이나 반가(班家)의 부녀들이 하절기에 사용하였다. 이 비녀는 백옥으로 만든 초롱잠으

로 일반적인 초롱잠과는 달리 비녀머리에 은과 진주, 산호, 비취모 등으로 만든 떨새(영락)장식을 달아 화려함을 더하였다.

이 비녀의 특징은 떨새장식으로 매화, 모란국화, 박쥐, 새, 나비, 영지, 대나무 잎 등의 모양을 은판으로 만들고 그 가장자리를 끈 은사로 둘러 마무리하였다. 또한 그 위에는 비취모를 붙여 돋보이게 하였다.

2.1.9 국화문앞꽃이(菊花紋앞꽃이)

유물번호: 장신구-134

백옥으로 국화문양을 깎아 만들고 그 중앙에 잎이 8장인 꽃으로 장식했다. 은으로 만들고 금도금한 꽃 장식은 중앙에 거미발 난집으로 홍파리를 물려 꽃술처럼 표현하였으며 꽃잎의 표면에는 어자문을 채우고 그 위에 비취모를 붙여 장식하였다.

2.1.10 니사봉황앞꽃이(泥絲鳳凰앞꽃이)

유물번호: 장신구-135

앞머리 가르마 위에 꽃아 사용한 봉황형 앞꽃이로 은으로 만들고 금도금하였다. 봉황의 머리와 몸체, 날개죽이는 가는 은사(銀絲)로 형태를 만들어 꾸미는 니사기법(泥絲技法)이 사용되었다. 날개와 꼬리는 은판으로 만들고 가장자리를 끈 은사를 둘러 마감하였으며 그 위에 비취모를 붙여 장식하였다. 꼬리 위에는 니사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만든 5엽의 꽃 2송이를 붙여 장식하였다. 꽃의 중앙에는 각각 산호와 진주, 비취모로 장식한 자방부(子房部)가 있다. 봉황의 입에는 2개의 매화가지가 좌우로 물려있는데 꽃과 잎사귀는 꼬리에서와 같이 은판으로 만들고 가장자리를 끈 은사를 둘러 마감하였으며 그 위에 비취모를 붙였다. 매화의 중앙에는 산호를 물려 장식하였다. 봉황의 앞머리에는 진주와 산호가 달린 3개의 떨새장식이 있다.

2.1.11 새앙머리댕기-장식부분

유물번호: 장신구-210

이 댕기는 예장용 앞댕기로 긴 봉잠을 꼰 후 봉잠의 좌우에 감아 앞쪽으로 늘어뜨려 사용한 것이다. 자색(紫色) 문단(紋緞)으로 만든 댕기의 양쪽 끝 부분에

는 홍파리, 진주, 비취모 등으로 꾸며진 화형백옥판(花形白玉板)이 장식되어있다. 백옥판 중앙에는 니사기법으로 만든 매화를 배치하고 그 중심에는 거미발 난집에 홍파리를 물렸으며 꽃잎에는 비취모를 붙였다. 매화 주 위에는 비취모로 꾸며진 6개의 꽃과 대나무 잎 장식이 배치되어 있다. 이 사이사이에는 4개의 진주와 2개의 홍파리를 물려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사진 1. 수식 장신구 유물

가란잡(加蘭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난초, 연꽃, 해오라기 등의 문양을 2D화 하였다.
매죽잡(梅竹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매화, 난초, 대나무, 불로초 등의 문양을 2D화 하였다.
매죽잡(梅竹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문양을 2D화 하였다.
산호매죽잡(珊瑚梅竹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문양을 2D화 하였다.
매죽잡(梅竹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매화, 난초, 대나무 잎 등의 문양을 2D화 하였다.
매조잡(梅鳥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매화와 새문양을 2D화 하였다.
	유물번호: 장신구-110

모란문오두잡 (牡丹紋烏頭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의 모란 문양을 2D화 하였다.
유물번호: 장신구-094, 장신구-095
	백옥영락초롱잡 (白玉瑩落草籠簪)
본 연구에서는 비녀 머리와 필새에 달린 장식을 2D문양화 하였다.
	유물번호: 장신구-126
국화문앞꽃이 (菊花紋앞꽃이)
	본 연구에서는 국화형태를 2D문양화 하였다.
유물번호: 장신구-134
	니사봉황앞꽃이 (泥絲鳳凰앞꽃이)
본 연구에서는 봉황형태를 2D문양화 하였다.
	유물번호: 장신구-135
새앙머리댕기-장식부분
	본 연구에서는 화형백옥판의 모양을 선으로 그려 2D화 하였다.
	유물번호: 장신구-210

2.2 영친왕비 장신구 문양에 담긴 상징성

장신구에는 착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미의식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때문에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와 문화, 사상 등을 반영하는 상징적 형태나 문양이 장신구에 표현되어 왔다.

조선시대 장신구는 오늘날과 달리 몸치장을 위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기능 외에, 교화적(敎化的)이고 현세구복적(現世求福的)인 의미의 상징적 형태나 문양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상징적 의미들은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이자 사회, 문화의 중심사상이었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외에도 예부터 전래되어 온 토속 신앙(土俗信仰)이나 신선사상(神仙思想) 등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매우 복잡적이다.

조선시대 여성장신구의 형태나 문양에 내포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여성에게 요구된 유교의 교화적

(敎化的) 의미 중 일부인 정절과 절개의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외면을 꾸미는 장신구에 여성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귀(富貴)·장수(長壽)·다남자(多男子)·벽사(辟邪)·부부화합(夫婦和合)등의 상징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이 내세보다는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했음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장신구에 내재된 여러 의미를 통해 당시 착용계층의 미의식과 신앙, 사상 등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대한 고찰은 전통문화와 당시 사회상에 대한 실증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11점의 영친왕비 수식(首飾)에 나타난 형태와 문양은 주로 식물문으로 매화·난초·대나무가 가장 많으며, 국화·모란·연꽃·복숭아·불로초(不老草)·불수감 등도 보인다. 이 밖에 나비·박쥐·새(봉황이나 해오라기 등) 등의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문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문양들은 옛부터 중국에서도 길상적 문양으로 애용되어 왔다. 중국문양은 문양주체를 뜻하는 문자의 발음과 길상적 문자의 발음이 같은 것, 문양주체의 생태가 길상적 의미와 연관된 것, 문양주체가 시나 고사와 관련된 것 등이 많은데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나 일본에 이러한 문양들이 전해져 같은 상징의미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³.

오늘날에는 전통 장신구 문양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잘 모른 채 단순히 심미성을 위한 장식소재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징의미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전통적 조형의 현대적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11점의 수식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의미 가운데 여성과 관련된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 매화

먼저 장신구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문양 중 하나인 매화는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추운 시기에 홀로 피어

맑은 향기와 우아한 운치를 보여 고상한 품격과 순결, 절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순결한 미녀에 비유되기도 하였으며 때로 매화와 대나무를 함께 그려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매화는 아내를, 대나무는 남편을 상징하다. 또한, 겨울이 되어 잎이 지고 나면 일견 죽은 것 같으나 다음해 다시 꽃이 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장수의 상징물로도 여겼다.

2.2.2 난초

난초는 사군자의 하나로서 고아한 품격과 지조 등을 뜻하며 이외에도 청아한 미녀(美女)나 귀녀(貴女)로도 비유된다. 이외에도 자손 창성의 의미가 있는데 <화경(花經)>에는 “난초의 다른 한 종류로 그 잎이 난에 비해 조금 넓고 부드러우며 꽃이 자백색인 것을 손(蓀)이라 한다.”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蓀)’과 자손을 의미하는 ‘손(孫)’의 중국어 발음이 같다하여 이러한 상징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2.2.3 대나무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계절 푸르기 때문에 군자의 품격과 강직한 절개나 정숙한 부인의 곧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2.4 국화

국화는 중국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이 자신의 지조를 굽힐 수 없다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소나무와 국화를 벗하면서 살았다는 일화에 연유하여 일반인들에게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사는 은사(隱士)의 고결한 품격이나 맑은 정취와 절개를 지닌 꽃으로 인식되어 왔다. 초목이 시드는 늦가을 서리와 풍상을 견디며 꽃을 피우는 그 생태 역시 인고와 절개의 의미와 연관 지어진다. 또한 국화는 본초강목 등에서 장수(長壽)의 약제로도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신선사상과 연관되어 장수를 뜻하기도 한다.

2.2.5 모란

모란은 목단(牡丹) 또는 부귀화(富貴花)라고도 불리

3 김봉희,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현대적 변용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7, pp. 67~68 참고.

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인해 부귀를 상징한다. 당나라 측천무후 때 장안에 모란을 완상하는 풍토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그 이래 부귀와 번영, 창성의 상징으로 널리 애호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일반화된 것은 송대(宋代)의 주돈이가 <애련설(愛蓮說)>에서 모란과 국화, 연화의 덕을 비교하면서 국화는 은일, 모란은 부귀, 연은 군자라고 정의한 이후부터로 짐작된다⁴. 이외에도 꽃 중의 꽃(花中王)으로써 최고의 미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2.2.6 연꽃

연꽃은 여러 뜻이 있으나 여성 장신구에서는 연꽃의 연(蓮)자와 연생귀자(連生貴子)의 연(連)자를 연관지어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꽃이 물새·나비·물고기 등 연당(蓮塘) 주변의 풍경과 함께 표현된 경우는 인간사의 즐거움과 부부 금슬을 뜻한다.

2.2.7 불수감

불수감(佛手柑)은 감귤류에 속하는 과실로 모양이 부처의 손가락을 닮아서 ‘불수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불수(佛手)의 ‘불(佛)’자가 ‘복(福)’자와 중국어 발음이 유사하여 복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2.2.8 불로초

신선의 약초로 여겨진 불로초는 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영초(靈草)로 서초(瑞草) 또는 선초(仙草)라 부르기도 했다.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불로장생(不老長生)하고 기사회생(起死回生) 한다는 신선사상이 담겨있다. 불로초는 십장생의 하나로 그려져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며 팔보문(八寶文)이나 기타 문양 장식으로도 쓰여 여의(如意)와 동일한 길상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불교용구인 여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 상징인 ‘뜻한 바를 이룬다’는 길상적 의미가 그대로 영지의 또 다른 상징 의미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2.2.9 나비

나비(胡蝶)는 기쁨과 즐거움, 부부화합을 상징한다.

또한, 나비 접(蝶)자는 80세를 뜻하는 질(耄)과 중국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80세 또는 장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화와 함께 그려지는 나비는 80세가 될 만큼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모란과 나비는 부귀영화의 기쁨을 기원하는 것이며, 덩굴식물과 나비는 자손 번성의 기쁨 또는 장수의 기쁨을 의미하고, 연꽃과 나비 또한 자손 번성의 기쁨을 기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10 박쥐

박쥐는 한자로 표기할 때 편복(蝙蝠)이라고 하는데 중국어 발음상 ‘편(蝠)’자가 복(福)자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하여 복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박쥐 두 마리를 쌍으로 배치한 문양은 복이 겹쳐서 들어오라는 의미의 쌍복(雙福)을 뜻하며, 박쥐 다섯 마리는 오복(五福)을 상징한다. 또한, 박쥐 네 마리의 중간에 목숨 ‘수(壽)’를 배치한 문양도 장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오복(五福)을 나타낸다.

2.2.11 봉황

봉황(鳳凰)은 상상의 새로서 사령(四靈) 중 하나이며 고귀(高貴)와 상서(祥瑞)로움을 상징한다. 봉황은 열 가지 덕을 갖추었다고 하여 궁중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앞모습은 기러기를 닮아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상징하며, 뒷모습은 기린으로 어진 임금을 상징하고 있다. 턱은 제비를 닮아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입부리는 닭을 닮아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불러온다. 목은 뱀을 닮아 풍년과 다산을 뜻하고, 꼬리는 물고기 꼬리를 닮았으니 물고기가 떼 지어 다니니 수많은 군사를 이끄는 병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마는 황새를 닮아 장수하고, 등은 재앙을 막고 앞일을 예견하는 거북이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좋은 점을 가졌기에 임금이나 왕비의 상징으로 쓰였다. 또한, 수컷을 鳳, 암컷을 凰이라고 하는데 원앙(鴛鴦)처럼 사이가 좋아 다정한 남녀 혹은 음과 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2.3 영친왕비 장신구의 디지털화(2D)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영친왕비 장신구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문양으로서 활용가

4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 2004, p. 188.

치가 있는 부분을 2D로 제작, 문양화 함으로써 문화원형의 디자인 복원을 시도하였다.

매화문	국화문	매화문
국화문	매화문	초화문
초화문	대나무잎문양	매죽잠
나비문	박쥐문	새문양
가란잠	매화잠	매조잠
매죽잠	매죽잠	산호매죽잠

매화문	국화문	국화문
매죽잠문양	매죽잠문양	산호매죽잠문양
매죽잠문양	박쥐문	매화초문
초화문	새문양	가란잠문양
매화잠문양	매조잠문양	새초화문
나비초화문	초화문	초화문

그림 1. 문양의 디지털 패턴

3. 디자인 활용

3.1 디지털 패턴

제작된 2D자료의 디자인 활용을 위해 원형 가운데 몇몇 부분을 추출하여 총 18점을 현대적 패턴으로 도안화하였다.

3.2 패턴의 산업적 활용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18점의 패턴을 활용하여 가락지 2점, 브로치 2점, 펜던트 1점, 쿠션 2점, 식기세트 1점, 총 8점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과 현대장신구 디자인에 한국적 문양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란잠 문양 가락지 I	가란잠 문양 가락지 II

매화조문 브로우치	나비문 펜던트

매죽잠 문양 식기	국화문 브로우치

초화문 쿠션 I	국화문 쿠션 II

그림 2. 산업적 활용 예

III. 결 론

궁중생활미술의 하나인 영친왕비의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과 조형성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전통은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발전되어 가기에 그 속에 시대상과 정서를 담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요즘, 옛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한국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소비자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장신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현재의 트렌드와 접목시킨 전통적인 주얼리를 현대 의상과 새롭게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소재면에서도 전통장신구에 주종을 이루던 옥, 비취, 산호, 호박 등 이외의 다양한 준보석을 이용한 전통적 이미지의 현대장신구가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친왕비 장신구의 연구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가운데 오늘날 문화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양요소가 풍부한 수식(首飾) 11점을 선정하여 그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세부의 조형을

살펴 각 유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가운데 문양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을 2D로 제작함으로써 전통장신구의 원형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하였다. 또한 개발한 2D자료를 현대적으로 도안화하여 디지털 패턴화 함으로써 문화산업과 현대장신구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오늘날 트렌드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제공될 때 전통을 현대화한 문화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 일가 복식*, 국립고궁박물관, 2010.
- [2]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7.
- [3] 국립민속박물관, *자수문양*, 대원사, 2004.
- [4] 김영숙,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도서출판 신유, 2002.
- [5]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 [6] 남완주,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9.
- [7] 오선희, *조선시대 여자비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 [8] 김봉희,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현대적 변용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7.
- [9]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 2004.
- [10] 추원교, *한국여성 장신구의 형성과정과 조형성 연구:부족국가시대에서 조선조까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11] 정영숙, *조선시대 부인용 머리장신구 문양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7.

저 자 소 개

정 아 영(A-Young Chung)

정회원

- 2002년 : 뉴욕주립대학교 뉴팔츠미술대학원 금속전공(미술학 석사)
- 2008년 : 국민대학교테크노디자인대학원금속/주얼리랩박사와정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인덕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주얼리, 금속세공, 문화콘텐츠